

지역 특유의 정서와 경기침체로 유통기반 흔들려

지방 출판유통 현장을 간다 ③ — 부산

부산은 우리나라 출판유통의 모태다. 전쟁와중에 자연스럽게 출판유통의 중심지가 됐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영예는 빛바랜 지 오래다. 지역 정서와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30여곳의 서점이 문을 닫았다. 출판유통의 동맥경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은 우리나라 출판유통의 모태다. 일제시대부터 양산되기 시작한 현대적 의미의 출판물은 6·25 전쟁으로 거의 사라졌으나 부산만큼은 온전히 지켰다. 피난을 내려온 많은 지식인들이 부산을 근거로 창작활동을 했고, 출판인들이 이를 책으로 만들어 유통시켰다. 전쟁와중에 자연스럽게 지금과 같은 출판유통의 개념이 부산에서 생겨난 것이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유통회사는 삼연문화사. 전쟁이 종료되면서 이곳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출판유통의 근원지가 됐다. 비록 12년 전에 폐업했지만, 그 공로는 크다. 삼연문화사와 함께 출판유통의 1세대로 꼽히는 곳은 대한도서. 이곳 역시 지금은 다른 유통업체로 흡수된 상태다. 우리나라 출판유통의 역사가 시작된 두 곳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진 사실에서 오늘날 부산지역 출판시장의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다.

지역적 정서 때문에 할인판매 성행

부산의 유통시장 규모는 전국 유통시장의 5~6% 정도.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규모에 맞지 않게 점유율은 매우 낮다. 한성서적 김종식 대표는 “책을 읽지 않아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많고, 최근 제조업과 해양업의 저조로 인한 불황이 출판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사태 이전 부산의 서점 수는 500개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1백여곳이 문을 닫았고, 올해도 60여곳이 문을 닫았다. 30여곳이 다시 문을 열기는 했지만 30% 가까운 서점이 문을 닫은 셈이다. 김대표는 “현재 60% 이상의 서점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점의 연쇄적인 폐업은 지역 특유의 정서도 한몫했다. 보수동에 가면 해방 이전부터 형성된 헌책방 거리가 있다. 연합도서 김동현 대표는 “보수동에서 헌책이든 새책이든 싸게 팔기 때문에 시민들은 무의식적으로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할인판매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됐고, 서점은 경쟁적으로 할인판매를 시행해 왔다(다행히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최근에는 삼성홈플러스·이마트·까르프 등 상설매장까지 곳곳에 등장해 30%이상의 할인판매를 하고 있어 일반 서점의 폐업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외부 유통업체의 밀어넣기식 영업진략때문에 서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서울의 대형 유통업체가 터무니없는 마진율로 상설 할인매장뿐 아니라 일반 서점에 마구 책을 밀어 넣어 할인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결국 서점과 유통업체, 나아가 출판사 모두에게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을 대표하는 서점 영광도서(위)
여섯곳의 유통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서적도매단지



지역문화 활성화가 출판유통 살리는 길

부산의 유통업체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여섯곳의 유통업체가 출자해 학장동에 96년 건립한 대단위 ‘서적도매단지’가 눈에 띈다. 단행본 유통회사인 한성서적과 한림서적(대표 이경복), 그리고 각종 총판들이 입주해 창고비와 물류비 등을 줄였다. 한편, 서점인들이 합심해 할인판매를 지양하고, 지역문화를 일으키기 위한 행사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건너야 할 ‘바다’가 너무 넓다. 경제지수가 점점 가라앉고 있어 출판물의 유통량은 회복될 기미가 안보인다. 한성서적 김대표는 “경쟁력 없는 유통회사는 통합해 지역 단위의 유통회사를 갖추고, 소매점도 과감하게 통합해 경쟁력 있는 서점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영광도서 김윤환 대표는 “서점인은 편승호황 기대를 포기하고 지역 정서에 맞는 전문서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 방법을 강구해 독서열기를 지킬 수만 있다면 전망이 그리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부산 출판가의 미래는 부산시민만의 몫은 아니다. 출판계가 힘을 모아 부산의 출판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다.

— 부산·오원진 기자